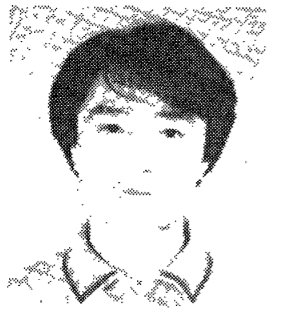


이론은 현실변혁 위한 주체적 지침이다

학술활동과 학문공동체의 위상과 과제



이 만 군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학문 사상의 자유 쟁취, 변혁에 기여하는 진보적 학술운동을 기치로 치켜들고 동국의 학풍쇄신을 위한 학문적 공동체」를 표방하는 연구모임 「인문사회과학연구회」(이하 인사연)가 오는 28일 창립대회를 갖는다. 우리민족이 안고있는 현실을 인문 사회과학의 각분야에서 진단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며, 일제식민지하에서 불교정신에 입각한 교육규격의 일본으로 설립되어 건학 1백주년을 내다보는 본교의 현재적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인사연의 창립취지는 그동안 안일한 자족과 정체의 타성에 젖어있던 대다수 동국의 연구자와 학교당국에 일대 각성을 촉구하고있다. 이에 본면에서는 인사연 창립기념논문을 게재하는 한편, 그간의 준비과정과 이후 연구활동의 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註>

I 어느 시대나 학문은 그 특정 사회의 제조건으로부터 연구의 주체를 제공받으며, 그 성과를 사회의 성원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국의 학문풍토는 이러한 상식이 율바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그것은 학문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자율성도 확보되어 있지 못한 점과 특정주체에 대해서도 접근조차 허용되지 못한 지극까지의 사정에서 기인한다.

분단 이후 이 땅의 학문연구자들은 그저 「낯선 서구이론의 맹목적 도입에 불투하거나 한국 현실을 그 이론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학문적 비주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론의 수용과정에서도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에 사로잡혀 반쪽 이론에 안주하는 이론적 보수성을 드러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풍토하에서 현실과의 치열한 지적 대결은 회피되었고 체제가 마련해 준 공간 속에서 소소한 지배집단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학문자세가 아무런 반성없이 일반화되어왔다.

문과 운동과의 결합에 관한 논의도 발전되어 가고있다. 80년대는 사회구조·사회운동·사회인식상에서 70년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지평을 보여주고있다. 구조적으로 60년대이후 종속적 자본주의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전반적 구조가 자본주의적 재편과정을 겪게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모순과 갈등이 전면적으로 노정되기에 이르렀고, 운동적으로는 70년대의 소시민적 민주화운동이 민족적·계급적 과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변혁적 운동으로서의 자기성격을 갖게되었고, 사회인식상으로는 사회의 각영역에서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인식이 보다 광범위하게 정착되고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80년대가 보여주는 이러한 심대한 변화는 지적·이데올로기적 질서의 주요구성부분을 이루는 보수적인 학계에도 파급되었고, 그 결과 학문연구상에 있어 진보적 인식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의 집단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주체적 소장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새로운 연구성과와 여러 학문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등장한 신흥학파, 연구회, 연구소 등은 바

른 학문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제기하는 것에 국한한다.

II

학문이론, 혹은 과학이론은 하나의 지적인 과정으로서 기존의 이론에 대한 비판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설명논리를 확립해간다. 따라서 이론은 기존이론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방법론적 전제,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비판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한편 이론은 현실변혁 운동을 위한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이론은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 체계화 및 그 속에서 도출되는 변혁주체의 형성의 논리이다. 이 경우 이론은 단순한 학술적 차원의 순수이론이라는 제한된 틀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관의 차원으로 승격되고, 주체의 적극적인 지향을 내포하는 사상으로 발전한다.

이 경우 과학이론과 사상은 긴밀히 결합된다. 따라서 순수한 이론적차원에서의 비판이 학술활동의 내포라고 한다면 그것의 문화적 사상적 파급력은 곧 그것의 의의를 규정하는 것이고, 사회의 변화정도와 맞고 학문의 자율성이 위축된 사회일수록 이러한 내포와 외연은 필연적으로 결

핵·일반화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학술활동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새 이론을 소개, 교육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게 된다. 80년대 이후의 많은 분야의 번역작업과 논문을 통한 이론의 정리, 소개작업은 비록 그것이 개별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했으나 학술활동이 운동적 차원으로 고양된 현실에서 볼 때 그 전사(前史)로서 평가받을 만하다. 물론 60-70년대 학문의 황무지상태에서 서구의 이론을 이 땅의 연구자들에게 소개한 선배학자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이 흐름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수준의 제고」라는 현대적 학술활동의 과제가 단지 「이론을 위한 이론」의 차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론이 사회현실과의 관련성을 의식하고 「대중을 위한 학문」 혹은 「민족의 이익에 기여하

지 지금까지 한국의 학문사회는 제도적 조건의 제약때문에 특정부류의 고전의 독해만이 허용되는 학문적 불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고전에 대한 깊은 지식에 근거한 이론수준의 제고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다. 최근에 와서야 이러한 한계가 조금씩 극복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고전에 대한 완벽한 이해의 수준에 도달하는것이 일차적 과제이며, 이러한 이해에 입각해서 실증적인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수준의 제고」라는 현대적 학술활동의 과제가 단지 「이론을 위한 이론」의 차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론이 사회현실과의 관련성을 의식하고 「대중을 위한 학문」 혹은 「민족의 이익에 기여하

테올로기적 지평」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는데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평은 본질적으로 분단사회의 제약에 의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에 비해 그 폭이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지식인의 일차적 존재조건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되어왔다.

분단 이후 우리나라에 진정한 사회사상이 형성되지 못했고, 대립되는 이론사상간의 이론적·실천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학자, 연구자들이 이론작업을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한된 이데올로기 지평이 사상의 성숙과 논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 연구자에게 이데올로기 지평의 확대와 변혁은 이론의 외화를 위한 가장 일차적인 생존조건인 문제인 것이다.

학문사회의 전반에 걸친 문제들, 즉 학문사회의 근대적 요소의 축적, 부조리의 철폐, 만연한 서구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해 학술활동의 올바른 위상을 설정해가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대학 혹은 학문사회의 새로운 학풍으로 쇄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미있는 연구작업을 촉매화하고 그 성과를 현실 속에 융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왜냐하면 학자, 연구자들의 성장의 통로인 대

우자의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특성을 제거해 나가고 이론수준을 제고시키며 연구성과를 조직적으로 외화시킬수있는 형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공동연구」이다. 이러한 공동연구의 활성화야말로 학문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초석이 될것이며 학자,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도입의 형식이 될것이다.

진정한 공동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정도의 방법론적 통일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실과의 편차를 줄일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공동연구의 형식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올바른 학술활동의 성패는 이러한 공동연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완수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공동연구의 토대 위에서야 비로소 학문의 대중화, 이론과 실천의 결합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앞서 언급한 학술활동의 과제속에 연구자들은 자신을 굳건히 뿌리박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이 시대와 살고있는 지식인의 절실한 책무를 다하는 일이다.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토대에 대한 구조적 분석, 사회적 제모순과갈등관계에 대한 이해, 이를 토한 경제학적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의 제시」가 그것이다. 또한 인간성애와 인간의 활동의 산물인 사회·역사에 대한 철학적, 문화적, 예술적고찰과 규명」이 그것이다.

그간 많은 선배학자들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해방 이후의 단절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제 끝없는마련사각한 단계에 불과하다. 훌륭한 이론은 외국인들이 그들의 토양에서 발전시킨 것들을 두류판적으로 조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체적 입장에 설 때만 획득될 수 있다. 사실을 우리는 이론사, 지식사, 사상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 배웠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목소리로 설명할 수 있을 때 학문 및 문화의 쇄신이라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학문이라는 현실에 대해 재고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은 현실변혁을 위한 세계관의 차원으로 승격, 주체의 적극적인 지향을 내포하는 사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보수적인 학계의 풍토에도 80년대 이후 민중운동의 성장에 자극받아 일정한 자기방성의 흐름이 일어났고 젊은 학자들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분야가 개척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넓게 보아서는 지식인의 자기각성의 과정으로 파악될수있으며 좁게는 민족의 이익에 기여하는 민중에게 유익한 과학의 발달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이래의 「비판적 아카데미즘」의 연장속에 있기는하나 단순한 아카데미즘의 수준을 넘어서 학

문 그러한 노력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다양한 분과학적 언어로 80년대에 상응하는 진정한 학문적 인식의 구체화와 확산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의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학술운동」을 하나의 부분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심도깊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학술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적인 논의보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학술활동의 내용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학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학술활동의 주요한 측면이 이론수준의 제고라는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론수준의 제고가 개별 학자, 연구자에게 국한된다면 학술활동이 갖는 사회적,외미가 감소될 것이다. 연구자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공유되고, 그러한 토대위에서 개별인의 의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래의 이론수준이 객관적으로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수준의 제고는 앞선 나라의 선진적인 이론의 도입·번

주체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이론수준의 제고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이론의 보편성과 국제성의 명분에 근거해있다 하더라도 선진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종속하에 놓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때, 필연적으로 현실도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론수준의 제고는 학문적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올바른 내용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자체의 발전만이 현실의 발전과 동일시되는 착각에 빠질 것이다.

이론수준의 제고는 학문의 주체성 확립, 그것된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기존의 이론이 현실을 과학의 검증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전면적 비판의 과정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의 사회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어느정도 실용력을 갖는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각 학문분야에서 가) 연구방법론의정립, 나) 기존의 연구성과의 지식사회학적 수준에서의 검토, 즉 연구성과 정서, 다) 연구내용을 규정하는 객관적 현실, 사회운동의 제 문제에 대한 현실감각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는 개별연구자의 수준에서 다소 진척되어 왔으나 보다 집단적인 논의구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작업과 동시에 여러 「고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현실에 대한 실증적인 작업이 병행되어야한다. 해방 이후

는 학문」을 지향할때, 학술활동은 이론수준의 제고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다.

이론작업이 실천성을 담보하고 스스로 현실 속에 구체화되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은 학문, 이론이 자율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학문의 자율성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

학문」을 지향할때, 학술활동은 이론수준의 제고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다.

이론작업이 실천성을 담보하고 스스로 현실 속에 구체화되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은 학문, 이론이 자율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학문의 자율성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

학문」을 지향할때, 학술활동은 이론수준의 제고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다.

이론작업이 실천성을 담보하고 스스로 현실 속에 구체화되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은 학문, 이론이 자율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학문의 자율성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

동국 학풍혁신 「인문사회과학 연구회」

변혁 지향의 학술연구공동체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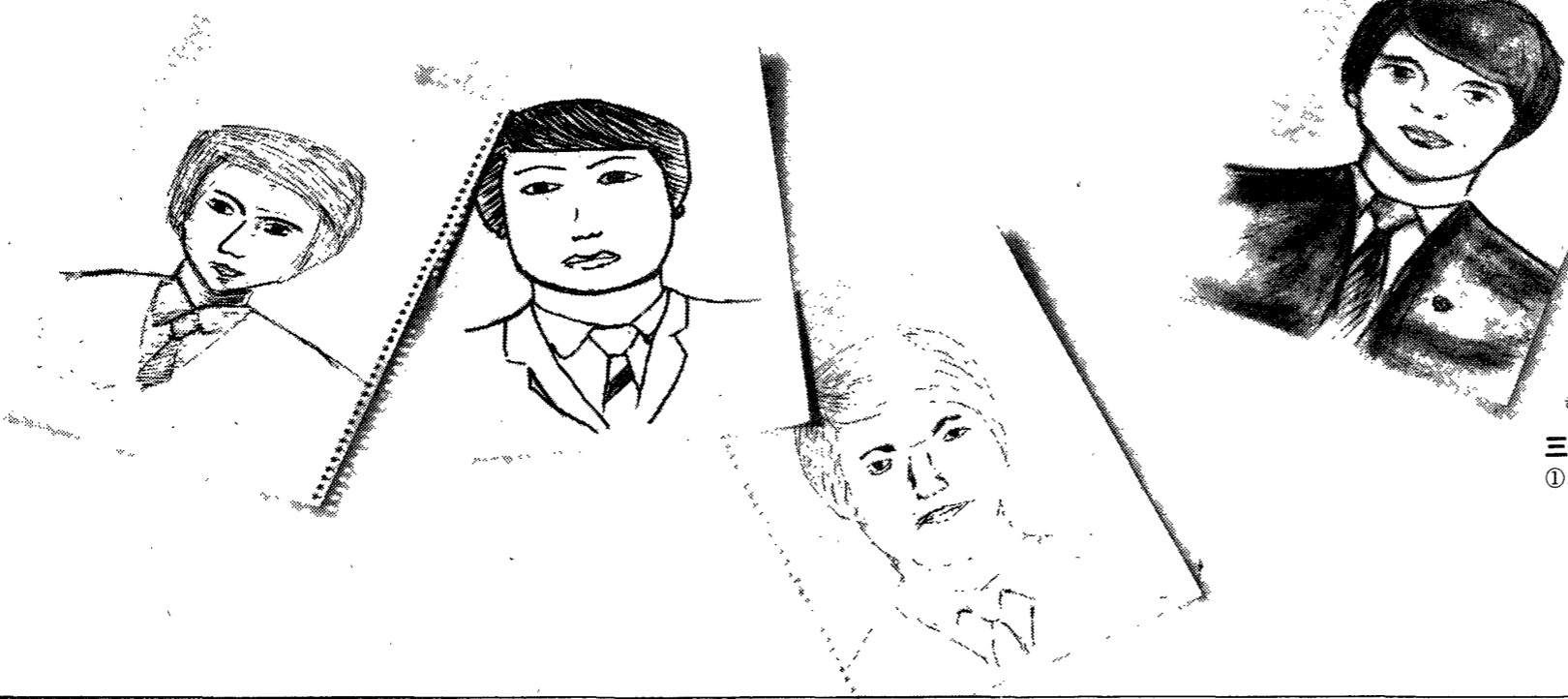
진취적인 학술연구모임 「인문사회과학연구회」가 교수와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28일 창립대회를 갖는다. 변혁운동에 있어 학술이론적 사상기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인사연은 올해 3월부터 주체적 실무작업에 돌입, 창립준비위원장 이명환(사학·박사과정, 감사), 총무간사 이만근(철학·박사과정), 준비위원 고성훈(사학·박사과정), 윤동철(철학·박사과정), 박희승(사회학·석사수료)을 중심으로 준비되어왔다. 인사연의 학술연구활동 방향은 첫째, 우리민족의 주체적 관점에서 역사·철학·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예술등 제반분야를

조사·연구하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고 둘째, 동국의 정체된 학풍을 혁신하고 새로운 창조적 학풍을 수립하며 셋째, 우리사회 현실에 근거한 「실사구시」 정신의 실천적 지식인 상을 모색하는 것이다. 회원규정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고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회의 활동에 있어 정치·경제학·철학을 담당하는 기초연구부, 한국근현대사를 담당하는 제 1연구부,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제 2연구부, 종교 사상을 담당하는 제 3연구부등 분과별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각분과별로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 조사·연구활동을 펴게 된다. 이

러한 연구성과들은 각종 심포지엄·세미나·강연회·월례발표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교육되어지며 학술교양강좌를 설치하여 이 학문적 학술연구공동체를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토론의 장도 마련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단체처럼 안일한 만족이나 안주에 머무르는 형태가 아닌, 진정으로 이 사회를 안고 고민하는 연구공동체로서 출발하는 인사연은 아직은 미약한 철매이지만 꾸준한 역발축적과 타오르는 정열로 동국의 일대 혁명을 앞당기는 「새로운」 학술운동의 전개를 꾀하고 있다. <이만진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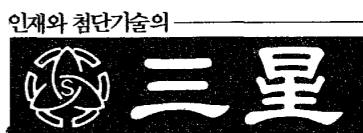
삼성의 재발견-①

똑같은걸 그렸는데 다 달랐습니다.



기업을 일으켜 국가에 보답한다는 事業報國의 杜是로 창업배세의 답을 세운 삼성 — 한국대표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최우선적 대안기대감을 수반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재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기 보다는 일속에 과분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대기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중소기업 육성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선진국은 첨단기술개발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필하고 있습니까? 삼성은 이런 다양한 「**결함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새로운 기업이념을 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도 그러한 사람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과 첨단기술면에서도 세계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이 될것입니다.

三星은 이와같은 일을 중시합니다
① 자율경영 ② 인간존중 ③ 첨단기술개발 ④ 평생직장 ⑤ 국제화



30년대 양심적 젊은이의 시대적 갈등그림

본 서평의 텍스트는 창작과 비평사가 발행한 한림사 장편소설 「황혼」 상, 하권 (89년 4월 10일)임을 밝힌다. 이



를 밝히는 이유는 한림사의 작품이 필자의 기억으로는 88년의 월북 작가의 작품 해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발견되었다는 경이로움 때문이며 원전을 통해 한림사 작품을 읽지 못하고 급근도 3월부터 시행하게된 개정된 한글맞춤법에 따라 편집 교정된 책을 읽고 필자에게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 책은 48년 11월 5일 영랑서관이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책끝의 남은 말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서평 집필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이 작가가 해방후 일찍이 문예출판사 발행인과 교육문화상을 역임하다가 숙청되었다는 자언외로서의 삶과 사상을 추적하기 보다는 작품의 문화적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황혼」은 한림사의 첫창

작품으로 36년 2월부터 10월까지 200여회동안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가정교사 여운(麗雲)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1930년대의 양심적인 젊은이들의 시대적인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여운은 한경도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잃고 5

의 애정 갈등을 통해 계층적인 사회구조가 젊은이들의 사상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삼각구조에 한림사를 사모하는 여성해방론자이기도한 여운, 김경재의 약혼녀인 신홍자본가 안중서의 딸 현옥이 합세하여 젊은이들은 계층 구조로 볼때, 여운을 중간 위치에 두고 위로는 김경재와 현옥, 아래로는 노동자인 한림사와 분리를 놓아 여운의 갈등을 심화시키려 했으며, 끝내는 여운을 노동자 투쟁의 선봉에 서게 하여 희생을 강요하는 계층적 고뇌를 극명하게 하려 한 작

은 계층 구조로 볼때, 여운을 중간 위치에 두고 위로는 김경재와 현옥, 아래로는 노동자인 한림사와 분리를 놓아 여운의 갈등을 심화시키려 했으며, 끝내는 여운을 노동자 투쟁의 선봉에 서게 하여 희생을 강요하는 계층적 고뇌를 극명하게 하려 한 작



당대의 경제구조모순에 대한 젊은 지식인의 비판과 민족해방의지를 통해 계층적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흔 집에 얽혀 살며 S여자와 교보를 나온 그 당시로는 인테리계층에 속하는 젊은 여자이다. 한림사는 여운과 통합인 노동운동들을 지도하는 근로자이다. 그리고 김경재라는 인물은 「영진」 가정교사로 들어간 집주인, 평안도 출신의 토착 자본가이며 Y반직회사 사장인 김경재의 아들이다. 이 장편소설의 한림사는 일단 여운을 둘러싼 이들 세 젊은이

같은 구조를 접목해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 구조는 계층 사회의 모순 구조를 드러내는데 보조하는 서사 출구일 뿐이다. 애정 심리의 대립을, 그리고 30년대의 애정 윤리를 노출시키기 위한 이야기 장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심리 묘사나 성격묘사는 불투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 구조에서 지나칠 수 없는 부분

고 공장 근로자를 줄여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운영방식으로 시도하나 실제로 도산한 반면, 금광으로 흥부가 되어 경영권을 인수한 예비사은 안중서는 산업합리화정책이라는 근로자 착취의 경영 방침을 실행하는 한편 대관 자본가로서의 지향을 서슴치 않는 사용자이다.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 대표 존시, 현철 그리고 여운은 투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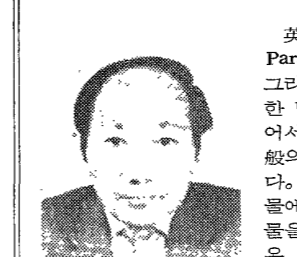
이러한 다른 한림기의 서사를 통해 한림사는 노동자의 뜻이 무엇이며 경제의 모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투쟁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1930년대의 상층에만 한정되지 않고 1980년대 후반인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투쟁이나 마르크스 사상으로 설명하였다는 작가의도의 소설 성격에서의 반영도 오늘날의 사회로 보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근로자 투쟁방식이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대의 경제 구조에 대한 젊은 지식인의 비판의식과 그것을 통한 민족해방의 의지일 것으로 보인다.

유한근 <동문·문학평론가>

달하나 파라독스와 平衡



梁元康 <자전과학대학교·분석화학>



말없이 작은 선물을 하나를 받았다. 동부방이였다. 무슨 연유였는지 의미를 모르며 오

英語의 파라독스 Paradox 라는 말은 그리스語에서 유래한 말로 Para는 『넘어서』, doxa는 『일반의견』이라 한다. 옛 원시인들은 돌을 빼지않고서 돌을 건너간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않는 어려운 사실로 알았다. 이처럼 보편이나 마르크스 사상으로 설명하였다는 작가의도의 소설 성격에서의 반영도 오늘날의 사회로 보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극의 모든 생활은 엔트로피라는 자체의 활력소가 증대하는 방향으로 존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식물의 탄산동화작용은 단백질을 만드는 일로 엔트로피가 비추어 어울리지 않는것을 일컬어 파라독스라한다. 그러나 후에 사람들은 물에 뜨는 물건을 이용하거나 물에 다리를 만들어 빠지지않고서 돌을 건너는 방법을 알게되었다. 이처럼 파라독스는 人間科學의 진보가 운세사의 중요한 一部分이 되지 않않나 하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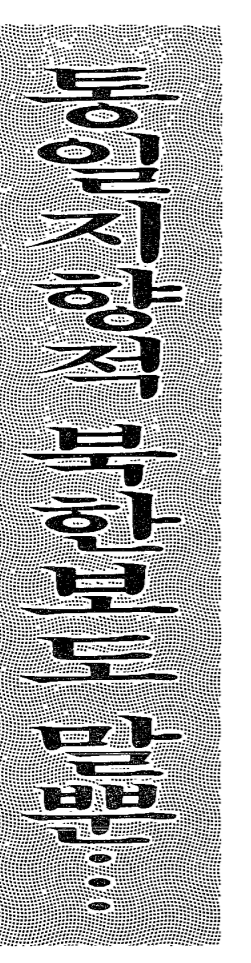
나는 생체실험으로 더 잘 알려진 日本九州(큐슈주) 대학의 H·Kimizuka 박사 연구실서 유학했다. 일본의 教授는 대개 연구실내에서는 군림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는데 이유는 어느 연구실이든 교수는 한명 뿐인데서다. 교수에게는 교수가 하라고 할 수 있다. 하나에서 열까지 Paradox로 점철되었다고 評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학회나 세미나를 앞둔날에는 虎兇(호랑이와 토끼)의 관계로 번번이 만치 파라독스로 친다.

말없이 작은 선물을 하나를 받았다. 동부방이였다. 무슨 연유였는지 의미를 모르며 오

유학의 마지막 해라고 생각된다. 어느 봄날에 박사가 불려서 연구실을 찾았을때 예 불의 햇살처럼 따스한 미소로 아무

말없이 작은 선물을 하나를 받았다. 동부방이였다. 무슨 연유였는지 의미를 모르며 오

획일과 통제 벗어나 자율·공정성 견지해야



지난날 우리의 언론은 군사독재의 그늘아래서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채 민주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비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통일시향적 부인론과 비판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경제학의 현상 조감

지난 8년간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실행해온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는 대단한 「정치 실험」인 동시에 「경제학의 실험」이었다.

지난 8년간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실행해온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는 대단한 「정치 실험」인 동시에 「경제학의 실험」이었다.

지난 8년간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실행해온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는 대단한 「정치 실험」인 동시에 「경제학의 실험」이었다.

북한에 대한 왜곡보도... 방송민주화에 역류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통일시향적 부인론과 비판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통일시향적 부인론과 비판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통일시향적 부인론과 비판

민주적·불공정보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언론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낱 명분을 세우는 데에 이용되었고 오랜 권위주의에 국인의 권리를 외면했다.

4월달... 공연

예술극장한마당에서는 제 2회 민족극 한마당에 참가하는 제주놀이배 한라산의 「4월달 한라산」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된다.

예술극장한마당에서는 제 2회 민족극 한마당에 참가하는 제주놀이배 한라산의 「4월달 한라산」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된다.

예술극장한마당에서는 제 2회 민족극 한마당에 참가하는 제주놀이배 한라산의 「4월달 한라산」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된다.

예술극장한마당에서는 제 2회 민족극 한마당에 참가하는 제주놀이배 한라산의 「4월달 한라산」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된다.

먹이사슬 공연

극단 메뚜기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오후 4시 30분, 7시 30분에 「먹이사슬」을 연우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석탄... 대법회

대한불교삼보법회(회장 조호정)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교원 8층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대법회를 갖는다.

수계법회

불교학생회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수계법회와 점등식을 시작으로 강원, 전라, 대동불교제도의 행사를 내달 4일까지 갖게 된다.

오천룡 개인전

서울갤러리 현대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재불화가 오천룡씨의 개인전이 열린다.

피아노... 연주

호암아트홀에서는 피아니스트 루미주 루시야이들이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에 마련된다.

남관 소품전

강남현대미술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원로 서양화가 남관의 소품전을 연다.

박영대 개인전

박영대씨가 서울갤러리에서 25일~30일까지 개인전시회를 마련한다.

대학생 해외연수

한국 학술진흥재단에서는 89학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해외연수를 위한 인원을 모집한다.

서도회 야외회

통독서도회에서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한강 쪽에서 졸업생을 포함 8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대회와 야외회를 갖게 된다.

RCY 일일차집

RCY에서는 아하과 지사

안중연 개인전

가나아트에서는 오는 29일

안중연 개인전

가나아트에서는 오는 29일

안중연 개인전

가나아트에서는 오는 29일

안중연 개인전

가나아트에서는 오는 29일

안중연 개인전

가나아트에서는 오는 29일

안중연 개인전

가나아트에서는 오는 29일

안중연 개인전

가나아트에서는 오는 29일

동국인 등산대회 성황리 마쳐

북한산(서울)과 남산(경주)서 총1천여명 참가 투쟁정신 계승발전으로 사회정의 실현

4·19기념 「제20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22일 학생부, 동아리부, 동문부, 기숙사부등 총51개팀이 참가하여 통일전을 출발, 칠불암→정상→용장계곡→삼릉에 이르

는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R.O.T.C팀이, 경기자랑 최우수상은 이순길(법학3)군이 각각 차지했다.

레슬링대표선발서 우승
신상규·소일수 군
본교 레슬링부 신상규(체교3) 소일수(체교2)군이 지난 19일 88체육관에서 열린 「89년도 세계선수권대회 2차선발전」 62kg급 자유형, 68kg급 그레코로만형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김철(경영2)군은 80kg급 그레코로만형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89년도 세선수권대회 최종선발전」은 오는 6월15일부터 17일까지 각체급마다 1·2차선발전에서 3위까지의 선수와 대표선수 1명이 참가해 88체육관에서 경기를 갖는데 본교에서는 1차 7명, 2차 3명 총 10명이 출전하게 된다.



이경철양 최성을을 위한 기도 및 살인폭력정권 규탄대회가 지난24일 오후 2시 불상 앞에서 열렸는데 이날 행사 지원스님은 「이양의 죽음처럼 모두가 이 민족의 통일이 되어 모든모순을 태워버리자」고 열변했다.

이반대회 참가자들은 등정에 앞서 오전 9시30분 비가 오는 가운데 수유리 4·19 기념탑 앞에서 분향을 하고, 각팀별로 4·19기념탑, 태고사터, 북한산성코스 등정을 했는데, 최우수상은 「동대부교팀」에게 특별상인 「ROTC」팀에게 각각 돌아갔다.

한편 참가팀 모두가 등산을 마친후에는 북한산성 유원지에서 각 단대별 특색장기자랑과 폐회식을 가졌다. 폐회식은 삼귀의예·총장인사 이준을(동국산악회장) 심판위원장의 강령·시상·사물서원순으로 진행됐는데, 대회장인 이준을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4·19에 대한 고차원적 발전계승과 미래에 대한 사회정의 이상실현을 위해 동국인은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캠퍼스 「제10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22일 오전 9시 金剛秀부총장을 비롯, 교수, 학생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 남산에서 열렸다.

채택관련과 동국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

대총 발대식·총회열려

지난20일 비상총학 감사및 진조위 활동보고

「제21대 총대의원회 발대식 및 정기총회」가 지난 20일 오후 5시 이준을총장과 대의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열렸다.

총2부로 나뉘어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출범식, 2부 정기총회」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출범식은 「류재건(야간경영4) 군의 사회로 개최돼 총장격려사, 단과대동 4개 대학의장소, 21대 총대의원회의 장단인사 및 대총 사업보고 및 계획보고고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정기총회에서는 의장 정태준군이 사회를 진행 88년 2학기 감사결과 보고, 89년 비상총학 감사결과 보고, 20대총학회의 예산지출 및 20대총학회의 예산지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 등이 있었다.

한편, 학생회비 분배안의결 총학사회사업계획 및 예산안의결, 총학생회 집행부인준등은 정족수 미달로 다음총회로 연기됐다.

이날 행사는 예전에 부러웠던 사다리타기대부분을 도입하여 재사용하다 일어났다.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은 전기설비인 1명이 지난해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한후 지금까지 증진을 하지 않고

과다한 업무를 시켜온 학교측에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교측이 지난해 8월 30일 지원노조 단체협약에 1명을 증원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번 사고의에도, 또다른 대형사고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었다.

또한 「해방의 불길로 타올라라」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 재인식을 위한 대동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불교도 주간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3회 불교도 주간 행사」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캠퍼스 불교도 연합회 주최로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수계대법회 및 연등점등식을 오는 28일 오후 5시 불상 앞에서 시작하여 애국민주열사 전도제를 오는 1일 같은 장소에서 저녁 「장차국버스와 열차」를 오는 2일과 3일에는 정동진(불교4)과 대원, 영종로 학생회관 4층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또한 「해방의 불길로 타올라라」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 재인식을 위한 대동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불교도 주간 행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동창회장에 鄭在哲등문 선출
鄭在哲(정치52층) 14대 총동창회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7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51차 정기이사회」에서 제 15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날 열린 이사회는 회장의 선출외에도 88년도 주요 업무보고, 결산감사보고 및 승인, 제15대 임원선출,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등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첫 연석회의개최
법대 발전위원회
서울캠퍼스 「법대 발전위원

회」(이하 법발위) 연석회의가 지난 21일 오후 7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51차 정기이사회」에서 제 15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날 열린 이사회는 회장의 선출외에도 88년도 주요 업무보고, 결산감사보고 및 승인, 제15대 임원선출,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등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행사는 「1부 출범식, 2부 정기총회」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출범식은 「류재건(야간경영4) 군의 사회로 개최돼 총장격려사, 단과대동 4개 대학의장소, 21대 총대의원회의 장단인사 및 대총 사업보고 및 계획보고고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정기총회에서는 의장 정태준군이 사회를 진행 88년 2학기 감사결과 보고, 89년 비상총학 감사결과 보고, 20대총학회의 예산지출 및 20대총학회의 예산지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 등이 있었다.

한편, 학생회비 분배안의결 총학사회사업계획 및 예산안의결, 총학생회 집행부인준등은 정족수 미달로 다음총회로 연기됐다.

이날 행사는 예전에 부러웠던 사다리타기대부분을 도입하여 재사용하다 일어났다.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은 전기설비인 1명이 지난해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한후 지금까지 증진을 하지 않고

과다한 업무를 시켜온 학교측에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교측이 지난해 8월 30일 지원노조 단체협약에 1명을 증원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번 사고의에도, 또다른 대형사고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었다.

또한 「해방의 불길로 타올라라」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 재인식을 위한 대동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불교도 주간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3회 불교도 주간 행사」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캠퍼스 불교도 연합회 주최로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수계대법회 및 연등점등식을 오는 28일 오후 5시 불상 앞에서 시작하여 애국민주열사 전도제를 오는 1일 같은 장소에서 저녁 「장차국버스와 열차」를 오는 2일과 3일에는 정동진(불교4)과 대원, 영종로 학생회관 4층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또한 「해방의 불길로 타올라라」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 재인식을 위한 대동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불교도 주간 행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제3회 불교도 주간 행사」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캠퍼스 불교도 연합회 주최로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수계대법회 및 연등점등식을 오는 28일 오후 5시 불상 앞에서 시작하여 애국민주열사 전도제를 오는 1일 같은 장소에서 저녁 「장차국버스와 열차」를 오는 2일과 3일에는 정동진(불교4)과 대원, 영종로 학생회관 4층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또한 「해방의 불길로 타올라라」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 재인식을 위한 대동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불교도 주간 행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제3회 불교도 주간 행사」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캠퍼스 불교도 연합회 주최로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에 걸쳐 실시했다. 전체 야간강좌의 30%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복지 전일제수업, 직장인 연합회 구성등을 내용으로한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간강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도출 조사했다.

이상로 대통령상
경찰간부 졸업식서
「제37기 경찰간부후보생졸업식」이 지난 22일 경찰총합학교에서 열려 본교 이상로군등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10명이 경위로 임관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이상로(89우)군이 대통령상을 김상우(89우)군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이날 경위로 임관한 등우는 박복선(85졸)김진기(86졸)장기돈(88졸)황도선(〃)최병삼(〃)심성환(〃)이상로(89졸)김상우(〃)이동민(〃)김근태(〃)군 등 10명이다.

임시교원양성소 철회 결의대회
사범대교수 30명이 성명서발표
「임시교원양성소 철회결의대회」가 지난20일 오전11시 30분 학생 1백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학원관 앞에서 열렸다.

사범대 여학생회장 민시현(체교4)양의 사회로 열린 이번대회는, 지난18일 학원관 앞에서 「국공·사립별 교원

대회의에서는 「국·공립 중등학교 부족분 2천5백명은 임시교원양성소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이후(장기적으로) 완전입용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국공·사립별 교원양성소 결의대회」를 주관하는 성명서발표회와 韓明浩(교육학) 사범대학장을 비롯, (해의출장중인) 손영표교수를 제외) 30명의 사범대 전교수의 서명이 있었다.

한편 지난20일에는 「서울지역 사립사대 전교수 결의대

회」가 오전11시 한양대학교 사범대학강당에서 최태욱(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공간 확보 요구
사회복지학과 등 3개과
경주캠퍼스에 올해 신설된 사회복지학과 등 3개과

경주캠퍼스 제6대 총대의원회 의장선거가 오는27일 오후 4시 도서관 4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회칙제16조에 의해 개최되는 이번선거는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대의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지며 접수는 지난 25일과 오늘(26) 양일간 오후 5시까지 총대의원회 사무실에서 갖으며 의장의 임기는 89학년도에 한하여 한학기(9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이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총학생회회 개정을 안건으로 지난 12일 오후 4시

30년 6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의장선거가 오는27일 오후 4시 도서관 4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안을 살펴보면 ▲제27조 총학생회 임기는 89학년도에 한해서만 오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70조 졸업앨범발행일 총학선기 시기는 89학년도에 한해서 6월과 11월에 실시 ▲제85조 각학생 자치기구대표 임기는 89학년도에 한해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임기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등이다.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부실공사의 결과물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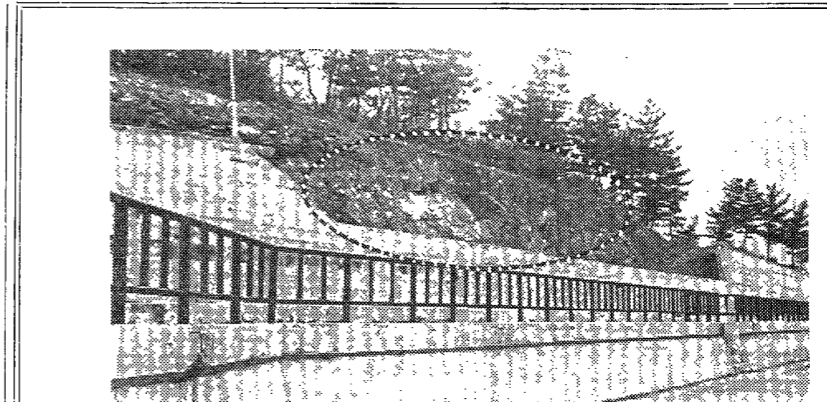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부실공사의 결과물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임시교원양성소 철회 결의대회
사범대교수 30명이 성명서발표
「임시교원양성소 철회결의대회」가 지난20일 오전11시 30분 학생 1백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학원관 앞에서 열렸다.

공간 확보 요구
사회복지학과 등 3개과
경주캠퍼스에 올해 신설된 사회복지학과 등 3개과

경주 대총의장 선거
경주캠퍼스 제6대 총대의원회 의장선거가 오는27일 오후 4시 도서관 4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회칙제16조에 의해 개최되는 이번선거는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대의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지며 접수는 지난 25일과 오늘(26) 양일간 오후 5시까지 총대의원회 사무실에서 갖으며 의장의 임기는 89학년도에 한하여 한학기(9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이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총학생회회 개정을 안건으로 지난 12일 오후 4시

30년 6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의장선거가 오는27일 오후 4시 도서관 4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안을 살펴보면 ▲제27조 총학생회 임기는 89학년도에 한해서만 오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70조 졸업앨범발행일 총학선기 시기는 89학년도에 한해서 6월과 11월에 실시 ▲제85조 각학생 자치기구대표 임기는 89학년도에 한해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임기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등이다.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스탠드의 파손된 모습. 완공되지 채 2년도 되지않은 장마철에 스탠드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자연변화에의한것은 실보다는 부실공사에 더큰 원인이있는듯, 학교측은 이에 대해 백상대동제(지난해 9월)

사랑처럼 부드럽다. 사랑처럼 싱그럽다.

신제품

우유가 들어있는 새로운 크림소다 크리미 탄생!

새로운 맛, 새로운 느낌으로 젊

